

“다양한 바가지에 담긴 삶의 지혜”

뒤옹박이 된 할머니 이야기



14일부터 비움박물관

지난 2016년 문을 연 비움박물관(동구 제봉로 143-1)은 이영화 관장이 50년 동안 모아온 민속품이 전시된 공간이다. ‘개방형 수장고’를 컨셉으로 한 박물관에 소장된 민속품은 3만여점에 달한다. 박물관을 열기 전 건물 3개 층 300평을 빌려 민속품을 보관했고, 정성껏 닦고 손질하며 분류하는 데만 6년이 걸릴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다.

서민들의 삶은 계절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비움박물관은 사계절에 맞춰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부채, 대나무, 의자 등 다양한 주제로 기획전을 열었다. 신문지, 달력 등 버려지는 종이로 만든 각종 ‘종이함’들로 꾸민 가을 전시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더불어 들려주는 전시로 눈길을 끌었다.

14일부터 시작되는 겨울 기획전은 ‘뒤옹박이

된 할머니 이야기’ 전(2022년 2월28일까지)다.

박으로 만든 각종 민속품을 주제로 하는 이번 전시 역시 선조들의 삶의 지혜와 흔적을 만나고 환경을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전시다.

조상들은 초가 지붕 위에 박넙개를 올리고 박농사를 지었다. 박이 익으면 박을 타서 하얀 박속으로 식구들 주린 배를 채우고, 박 껍질로는 바가지를 만들었다.

전시작은 약 200여 점으로 “이렇게 다양한 바가지들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든다. 소박한 바가지 하나가 그만큼 쓰임새가 많았다는 의미다. 전시에서는 흔히 접했던 물 바가지를 비롯해 농사에 쓸 두엄을 만들 때 사용했던 통 바가지, 양중맛은 조롱박, 다양한 그림을 그려 집에 걸어두고 장식품처럼 활용하던 그림 바가지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실로 꿰맨 바가지에서는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했던 조상들의 마음도 느낄 수 있다

박을 쪼개지 않고, 꼭지 근처에 구멍을 뚫고 속을 파내 만든 바가지인 ‘뒤옹박’은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씨앗’을 겨울 내내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됐으니 우리를 먹이는 생명의 근원을 품고 있는 셈이다.

한편 2~4층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민속품은 조상들의 삶의 흔적을 생생히 보여준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을 수백개의 밧그릇,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자수 작품, 저승길에 함께 했던 꼭두 등 다양한 민속품을 만날 수 있다.

이영화 관장은 “쓰임새가 많았던 바가지를 보며 우리 각자의 쓰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좋겠다”며 “자구를 살리는 작은 씨앗 한톨이 어찌면 뒤옹박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개막일인 14일 무료 관람, 일·월요일 휴관.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비움박물관에서 열리는 ‘뒤옹박이 된 할머니 이야기’전에 전시된 다양한 민속품.

소박한 풍경에 이야기 담기

전혜옥 목판화전, 15일까지 메이홀

광주 메이홀(동구 문화전당로 23번길 1)에서 첫 번째 목판화 개인전(15일까지)을 열고 있는 전혜옥(아시아목판화연구소 사무국장)작가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다. 판화에 입문한 지 3년 차로, 그의 작품 속에 담긴 소박한 풍경들엔 이야기가 흐른다.

그의 작품은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손자를 업고 있는 할머니의 행복한 얼굴이 인상적인 ‘어부바’나 연잎 우산을 들고 꽃과 나무 속에서 해맑은 웃음을 터트리는 아이의 모습을 담은 ‘산책’, 아이들 다 키우고 하와이로의 여행을 상상하는 ‘꿈꾸는 자화상’ 등은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

잊혀져 가는 우리 삶의 풍경들도 눈에 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흑백사진 속의 전통 혼례식 모습, 날 뛰고 연 날리던 설날 풍경, 어느 시골에서나 만날 수 있었던 상여 행렬,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아이들이 모습 등이 그의 손맛으로 살아

났다.

또 신명나는 모습이 인상적인 ‘탈춤’ 연작과 풍물패를 소재로 한 작품에서는 대학 탈춤반에서 활동했던 1980년대 후반을 돌아보기도 한다.

세상에 대한 발언도 잊지 않는다. 시위에 참가한 이들의 모습을 다채롭게 표현한 대작 ‘촛불 시위’를 비롯해 넘쳐나는 바다 쓰레기로 위험에 처한 고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신화’, 미안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쿠데타 방지 부(符)’ 등의 작품도 선보이고 있다.

판화와 단상을 함께 엮은 작품집에는 서문을 쓴 이호복 시인의 말처럼 ‘이야기꾼’으로 그녀의 모습도 만날 수 있다. 개인전 기간 중 전시장에서 작업을 이어간다. 전 작가는 ‘목판화 보따리전’, ‘13인의 엄마이야기’전, ‘오월정신 릴레이 아트’전 등에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어부바’

‘카메라타전남’ 송년음악회

17일 전남대 민주마루



지휘자 박인욱



테너 윤병길

사단법인 카메라타전남 제9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가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에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열린다.

지역예술인과 지역민이 하나되어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공연에서는 이날 공연에서는 작곡가 김진수의 곡과 바그너, 베르디, 차이코프스키 등의 오페라 아리아와 뮤지컬 곡을 만날 수 있다.

공연은 작곡가 김진수의 ‘장고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간구’로 시작해 바그너의 오페라 ‘탄호이저’ 중 ‘저녁별의 노래’, 조르다노의 오페라 ‘안드레아 세니에’ 중 ‘어느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등을 들려준다. 이어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의 ‘이룰 수 없는 꿈’, 커티스 ‘물망초’,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 중 ‘아무도 모르라고’ 등도 선보인다. 마지막은 ‘운영 교향곡’으로 알려진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4번’으로 장식한다.

공연에는 지휘자 박인욱을 필두로 작곡가 김진수, 테너 윤병길, 바리톤 공병우, 장고 임용남이 함께 한다.

한편 카메라타전남은 광주의 음악적 역량과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등 클래식 음악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사각지대, 그 틈을 서성이다’

전남대박물관 한국회화 4인 기획초대전, 내년 1월 5일까지

우리 주위에는 감각에 지각되지 않는 틈이 존재한다. 흔히 ‘사각지대’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다양한 의미와 배경을 품고 있다.

전남대학교박물관(관장 정금희)이 한국회화 4인 기획초대전을 대학역사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연다.

‘사각지대, 그 틈을 서성이다’를 주제로 내년 1월 5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전시에는 김호민·윤세영·이창훈·장용림 작가가 참여했다. 작품은 독자적인 사각지대를 탐구해 승화시킨 작품들로 구성됐다.

김호민 작가는 현대의 ‘캠핑’을 소재로 전통적 산수화와 접목해 자연을 배경으로 시공간을 뛰어넘은 작품을 표현한다. 윤세영 작가는 생성과 소멸, 있음(有)과 없음(無), 존재와 비존재로 점철된 삶의 실체를 생성지점으로 표현하며, 이창훈 작가는 우리 민화의 주요 소재인 까치호랑이를 익살스럽게 풀어내는 한편 영물과 길상의 의미도 담



김호민 작 '오리산생 산수유람기-망양정'

아낸다.

장용림 작가는 ‘숨’이라는 단어를 모티브로 자연과 삶이 순환하는 이야기를 한국적이고 섬세한 주제로 표현한다. 문의 062-530-358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틈새미술 공모전, 작품 19점 수상...김혜영 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인 소화누리는 광주지역 성인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제4회 틈새미술 공모전을 개최했다.

2017년부터 성인장애인의 사회참여증진과 아르브뤼 작가발굴을 위해 개최해온 행사로 올해는 예년과 달리 남성 정신장애인과 함께 참여했다.

‘아르브뤼(Art Brut)’는 ‘가공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순수한 미술’을 지칭한다. 1945년 프랑스 화가 장 뒤뷔페가 다듬어지지 않은 순수하고 창조적 충동에 의해 작업하는 정신질환자들의 그림을 예술적 창작물로 인정하는 말로 처음 사용됐다.

올해 공모전에는 성인정신장애인 40명이 참여했으며 총 60점의 작품 중 19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스스로에게 응원하고자 작업한 김혜영의 작품 ‘피어 오르다’가 차지했다. 심사는 주홍작가와 국제장애인복지재단문화예술교류협회추진위원장 정한울 작가가 맡았다.

수상작은 소화누리에 자리한 틈새미술관(소화누리)에서 오는 17일부터 2022년 1월19일까지 전시되며 오는 17일 오후 2시 오픈식 및 시상식이 진행된다. 블로그 전시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